

“쓰레기라뇨” 해조류·산림 부산물 ‘효자노릇’

해조류, 친환경 퇴비 재활용...바다 환경오염 방지

산림류, 우드칩·톱밥 변신 소외계층 빨갇 지원도

해조류 생산이나 숯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산물이 환경 보호는 물론 친환경 농업, 소외계층 지원 등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부산물의 사용가치를 재발견한 행정 당국에서는 수산업원을 들여 가공 연구센터 건립에 나섰다.

4일 전남도와 도 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미역귀와 다시마꼬리 등 한 해 평균 배출되는 해조류 부산물은 전남 전체 해조류 생산량의 5% 가

량인 4만5000t에서 5만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이들 부산물은 대부분 폐기 또는 방치되기 일쑤였으나 재활용 사업으로 최근에는 1석5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당장은 바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발생했고, 규격에 미달돼 버려졌던 일부 저급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초래된 지역 수산물의 이미지 훼손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

전북양식의 먹이로 공급되거나 친환경 경작 재배를 위한 유기질 퇴비로도 재활용돼 농어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2008년부터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온 완도의 경우 지난해에만 6억8700만원을 투입, 미역 부산물 5220t을 재활용하고 다시마꼬리 100t을 수매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이같은 숨은 가치를 인정,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2015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고흥군 금산면 일원 3300㎡ 부지에 해조류 부산물 가공연구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미역 부산물에 포함된 후코이단(Fucoidan)을 활용한 화장품 등 고부

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동과 제조·가공시설 건립이 골자다. 후코이단은 미역과 다시마같은 갈조류에 함유된 성분으로 함암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도는 미역귀 고차가공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올초에는 미역귀의 기능성 물질을 활용한 화장품을 생산하고 상표출원 심사도 의뢰해 둔 상태다.

숯가꾸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가지 등 산림부산물도 쓸모있는 자원으로 재탄생했다. 우드칩이나 톱밥으로 재활용돼 공원이거나 조림지 등에서 수목보호용으로 쓰이고 있다.

무안군에서는 지난해 산림부산물 690㎥를 수집한 뒤 목재파쇄기를 활용, 우드칩이나 톱밥을 생산한 다음 이를 축산·화훼농가나 공원, 조림지 등에 보급했다. 또 담양과 곡성 등 상당수 시·군에서는 매년 1t 트럭 수십 대 분량의 부산물 목재를 소외된 이웃에 사랑의 빨갇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산림부산물은 퇴비 효과는 물론 잡초 발생을 억제하고 산불 발생 시 불길 확산을 막는 등 여러 효과가 있다”며 “특히 저소득 가정에 사랑의 빨갇으로 활용돼 주민복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여수시 시티투어 인기 폭발

운영업체 공모 23개사가 관심...이용객도 급증

여수시 시티투어의 폭발적 인기가 운영업체 공모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4일 여수시가 돌산청사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여수시티투어 운영업체 공모에 따른 사업설명회에 23개 업체가 관심을 갖은 것.

시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난 2010년 9130명에 불과했던 시티투어가 최근 2년 사이 이용객이 두 배 이상 늘며 인기를 끌자 사업성을 밝게 본 업체들이 대거 몰려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9130명에

불과하던 시티투어 이용객 수는 2011년 1만4600명, 2012년 2만3600명 등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예약률도 높아 방학과 주말에는 2~3주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여수의 아름다운 밤바다를 볼 수 있는 야경 시티투어는 연일 만석으로 인기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티투어 이용객들이 매년 증가하며 사업적인 전망도 밝은 편”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철화기자 chkim@

화순군수 3개월째 공백...행정 공백 장기화 우려

‘광역친환경단지사업’ 등 주요사업 차질...주민들 신속 재판 기대

홍익 화순군수 구속이 장기화 됨에 따라 심각한 행정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홍 군수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6일 구속돼 같은달 13일 기소됨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화순군정은 민중기 부군

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가 올해 1월 2일 김연태 부군수 취임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군수의 장기 공석으로 당장 화순군 행정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군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광역친

환경단지사업’, ‘삼천·광역택지개발사업’, ‘능주누타운사업’ 등이 갈팡질팡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예산확보도 시급하다. 군정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중앙 부처를 방문해 직접 설득할 수 없어 예산확보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원활한 군정을 위해 군수 공백 사태가 시급하

게 해결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 군수가 구속된 이후 두번의 공판이 열렸지만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증인만 신청한 상태이고 그나마 한번은 연기됐다.

또 홍 군수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1심 판결 시기도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하더라도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지난해 완도 청산도의 슬로우 걷기 축제에 참가한 관광객들이 유채꽃이 활짝 핀 돌담길을 걷고 있다. 올해 슬로우 걷기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속에 11개 코스에서 열린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완도 청산도서 ‘슬로우 걷기축제’

내달 한달간...11개 코스 등 프로그램 다양

슬로시티인 완도 청산도에서 4월 한 달간 ‘슬로우 걷기 축제’가 열린다. 청산도는 쪽빛 바다, 노란 유채꽃, 푸른 청보리가 어우러져 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걷기를 테마로 한 전국 최초의 이 축제는 ‘느림은 행복이다’란 주제로 국제슬로시티연맹이 공식 인증한 세계 슬로길 1호를 천천히 걸

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표 프로그램은 ‘청·산·완·보’다. 슬로길을 느리게 걷고(緩步) 웃으며 걸다(莞步)보면 어느새 완보(完步)하게 되는 길이란 뜻이다. 관광객이 슬로길 11개 코스(4만2195km) 중간마다 비치된 스탬프를 찍으며 천천히 걷는 걷기 프

그램이다.

축제 공식행사는 다음달 13일 열린다. 느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느림의 종 타종식’과 청산도 특유의 전통 농업방식인 구들장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 지정 기념 선포식 등 체험행사 15종, 문화예술프로그램 11종, 홍보 이벤트 7종이 펼쳐진다.

청산도는 2007년 한해 9만명이던 관광객이 2011년과 지난해에 각각 30만명을 넘어섰다.

김종식 군수는 “청산도의 풍경을 보며 느릿느릿 걷는다면 여유와 행복이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강진에 20억 규모 농산물가공공장 준공

도정·제분·낙시 밀밥용 집어제 등 생산

강진군 칠량면에 밀과 보리 도정 및 제분은 물론 낙시 밀밥용 집어제를 가공하는 농산물 가공공장이 들어섰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칠량면에 남도그린이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체제에 들어갔다. 남도그린은 군비 9억원과 사업자 자부담 11억 등 총 20억원을 투자해 8264㎡의 대지에 건평 1652㎡ 규모로 준공됐다.(사진)

남도그린은 최첨단 시설을 완비해 도정, 압맥, 제분, 식빵 생산은 물론 부산물을 이용한 낙시 집어제 생산라인 등을 갖췄다.

남도그린 이상준 대표는 “지역에서 생산한 밀과 보리를 가공해 부가

가치를 높이고 부산물에 이르기까지 한 톨의 폐기물도 없이 각 공정별로 제조 및 재제조에 힘을 받침”이라며 “특히 낙시 집어제를 친환경 상품으로 생산해 전남을 벗어나 전국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준공식에 참석한 강진읍 강진군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하고 판매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농산물의 식품 가공화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군비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도그린과 남부농협은 지역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칠량·대구·마랑지역과 우리밀 계약재배를 맺고 원료곡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진=남철화기자 choul@

나주시·장성군·보성군 ‘최우수’

2012년도 투자유치 대상 시상

전남도는 4일 도청 왕인실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정책회의를 갖고, 2012년 투자유치 대상을 시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나주시와 장성군, 보성군이 최우수 시·군, 영광 박수읍이 최우수 읍·면·동, 도 건설방재국이 최우수 실·국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는 전남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최대 역점과제로 추진, 지난해 기업 397개를 유치하고 일자리 1만1439개를 창출했다. 민선 5기 들어서는 총 975개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3만5922개가 새롭게 생겼다.

도는 올해 기업 500개 유치와 일자리 2만5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탈북미녀와 함께 하는 **이웃에게 만나러 갑니다**

매주 일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